

목포 문태고, 학교운영방안 워크숍 성료

전 교직원 참여...교사 역량 강화 토의·토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공감대



문태고등학교는 지난 20일 월요일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강당에서 2020학년도 학교운영방안 워크숍을 전 교직원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료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의 발전과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토론을 기반으로 허심탄화하게 주제별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다들 알다시피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른 인성과 창의융합형 사고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혁신을 끌어냈다.”라고 평했다.

이날 문태고등학교 김승만 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마음 열기 레크리에이션 ▲ 수업 개선 방안 마련 ▲ 학생 지도 방안 마련 ▲ 교사 문화 개선 방안 마련 등 주제별로 크나큰 성과와 만족을 올렸

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문태고등학교 정종학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경력 교사와 초임 교사가 오로지 좋은 교육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화합한 점이 대단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문태고등학교 김승만 교장은 “꿈을 찾고 실력 키워 행복 나누는 배움공동체 문태고등학교의 전 교직원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스스로 혁신에 나서는 모습에 학교장으로서 매우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라며, “문태의 교직원 이 뜻하는 비전을 품고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화순교육청, 광주교대학생 참여 멘토링 성료

화순교육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 대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멘티 2~3명을 1개 반으로 10개 반을 구성하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화순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별화된 학습과 진로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력향상에 기여하고, 학생 개인의 꿈과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멘티 학생들의 기초·심화학습, 진로교육 등 희망하는 해당 분야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 광주교육대학교에 해당 분야의 멘토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멘티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멘토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학교에서는 멘티가 원하는 기간과 시간에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했다.

멘토 대학생들은 예비교사로서 교육실습 기회를 통한 교육관 확립, 학습지도 능력 배양 및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평초 학생은 “대학생 언니와 공부도 하고, 평소엔 ‘나만의 해야 할 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듣는 과정에서 풀렸던 점을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최원식 교육장은 “우리 지역 예비교사의 산실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생 참여멘토링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 활용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는 기초·기본학력 향상,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으며, 광주교육대학교와는 올해 찾아 가는 SW교육 등으로 교류사업을 확대해 관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전남교육청, 202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큰 기대 속에 교실수업 혁신을 이끌었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오후 목포상그리아관광비치호텔에서 송용석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도교육청은 ‘2020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의 자발성과 동료성을 바탕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현장 안착을 이취 전남교육 공극의 목표인 수업혁신과 공동체 문화 조성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연구원이 주관해 도내 초·중등 교사 80명을 전문적학습공동체 핵심리더로 양성하고, 150팀 안팎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획형 연수를 운영기로 했다. 또,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50여 명을 선정해 1인1연구를 통한 ‘나도 강사, 나도 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지원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성원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현하기 위해 공동체 네트워크 및 학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여름방학 기간 중 나눔 한마당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회, 원탁토론회, 정책자료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제 학교와 교실이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은 기자

담양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찾아가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실시

담양교육청 담양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담양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도란도란 배움교실’을 마련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높이고 기초학력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학습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전문 학습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물의 형태에 빌려서 자유롭게 나타내는 ‘마법의 과자 집’, ‘내 마음 보여주기’,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잘 듣고! 잘 보



기!’, ‘내 마음을 전해줘’ 등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외부강사 지원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치료 전문가가 책을 읽고 보드게임으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리딩보드게임’

으로 총 8회기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2일 첫 수업이 시작된 샘물지역아동센터의 한 학생은 “정말 재밌다. 상담프로그램이라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이진 재밌는 프로그램이라 일기장에 적고 싶다”라고 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학습공백이 발생하는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내 집단상담 및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고,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담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 통합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정영 기자

곡성교육청-곡성군 교육 협력 업무협약

곡성교육청은 29일 곡성군과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라는 큰 틀에서 곡성 아이들이 내실 있고 다양한 방과후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곡성교육청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0.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토대를 마련하였고, 다가오는 2020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과정 일부(오후 2시부터 10교정)를 지역사회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학교 밖에서 운영할 계획이



다.

곡성교육청 허성균 교육장은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방과후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수록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협력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